

대학생의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와 피임사용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Use among College Students: Function of Gender, Age, and Residence

최정현 · 김경은* · 신미아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Choi, Jung-Hyun · Kim, Kyoung-Eun* · Shin, Mi-A

Dep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and knowledge of contraceptives. Gender, age group and place of residence were examined to identify variables related to contraceptive use. A total of 388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degree of contraceptive knowledge between genders, age groups, and residence type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age. Second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s contraception in gender and age and there was als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sidence type and age. Thirdly, college students' contraceptive use could be successfully predicted by gender and attitude towards contraception. Male students who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s contraception were more likely to use contraceptives. This suggests attitudes towards contracep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contraceptive programs.

Keywords : knowledge of contraceptives, attitudes towards contraception, use of contraceptives, college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생의 주기에 있어 청소년 후기부터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기로,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의식이 강해지고 성적 성숙으로 인해 신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충동들이 일어난다. 특히 일찍이 경

험해 본 일이 없는 강한 성적 충동은 청년들이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청년기에는 이성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에릭슨은 이 시기 동안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으로 친밀감 대 고립감을 제시하였고,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사랑이라는 과업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7). 이 시기에 다양한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밀

* Corresponding author: Kim, Kyoung-Eun
Tel: 041-580-2328, Fax: 041-580-2924
E-mail: leejay48@chol.net

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의 신뢰로운 관계형성은 이후 결혼 및 만족스런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성에 대한 정체성과 성태도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청년기 인격형성 및 결혼 후 부부간의 생활, 나아가 우리사회의 성문화 형성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진희, 김정신, 2008).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남녀 대학생 모두 성 개방 문화에 노출되면서 성 경험의 빈도가 증가하고, 혼전 임신으로 인한 낙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성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적으로는 성을 금기시 하지만, 한편으로는 쾌락적이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을 간주하는 이중적인 윤리로서 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은 고교시절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지지만 성적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에 관한 가치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준비된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고연숙, 2001). 따라서 충동적 성행위로 인한 혼전 성교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피임의 실천이 그에 따르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박선영, 2002).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에서 성경험률은 남학생의 55~77%, 여학생의 22~35%로 나타났다(박미숙, 2001; 최명숙, 하나신, 2004; 허명행 외, 2007). 또한 남자 대학생의 92%, 여자 대학생의 63%가 혼전 성관계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혼전 성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은경, 1999). 이처럼 혼전 성교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혼전성교로 인한 원하지 않는 결과(예를 들면, 임신 혹은 임신 중절 등)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피임이란 수태조절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 조치를 말한다. 피임 없이 성행위를 하는 청년들에게 임신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임신 중절의 합병증 및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임신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해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위협받게 되고, 극단적으로

는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어 입양기관에 자녀를 버림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진정한 성에 대한 자유란 자신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피임 정보를 얻어 임신을 조절하고,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피임을 당당하게 요구할 때 확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임을 안전한 성생활의 필수요건이며 성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최소영 외, 2004). 이영희 외(1997)가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성교육 내용이 피임에 관한 것으로 전체의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용으로는 피임방법의 선택, 피임방법별 장단점 등 실제 적용을 위한 피임지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임지식은 생식기관과 관련된 해부 및 생리, 피임의 효과 및 사용 등과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Wang *et al.*, 2003). 이러한 피임지식은 대학생들이 성행위에서 충동적이거나 무지로 인해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피임사용을 도와주는 인지적 틀이 된다. 즉, 올바른 피임에 대한 지식습득 및 지식의 활용은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Hornick *et al.*(1986)은 피임의 성공적 수행자와 비성공적 수행자들을 구별하는 유의한 구별인자로 피임지식을 보고하였다. 성공적인 피임수행자들은 비성공적 수행자들에 비해 피임법의 종류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김진희(1999)의 연구에서는 피임지식과 피임사용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피임지식과 피임사용의 관계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논쟁적인 변수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피임태도는 개인이 임신예방을 위해 피임사용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즉, 피임태도는 한 개인이 피임사용에 대해 갖고 있는 호불호(好不好)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혼여성에서의 피임사용 설명모형을 발표한 Herold와 Mcnamee(1982)의 연구에서는 피임에 대한 태도가 피임사용을 가장 잘 예측하며 피임사용을 33%나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Nigeria 927 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피임과 관련된 태도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피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남성들도 피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피임 태도가 피임사용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다(Odimegwu, 1999). 기존 선행연구에서

피임지식, 피임태도 혹은 피임사용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고(김미중, 2001; 김미중, 강희선, 2003), 대학생들의 피임연구는 성실태 및 성교육 요구(이혜숙, 2002), 성경험, 성태도 및 성적 자율성(김진희, 김정신, 2008; 최명숙, 하나선, 2004)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단편적인 피임지식 및 태도영역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임지식이나 피임태도 및 피임사용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임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소수 진행되어 왔으나 피임지식이나 피임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만 20세가 되는 시기에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 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것이다. 이 연령부터는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이 가능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과 태도 및 피임사용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이 되면 이전에 비해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대학생이 되면 다양한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공간적인 자유는 상당한 심리적인 자유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험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박금숙, 2007),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성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가질 뿐 아니라 혼자 생활함으로써 인해 생기는 심리적인 자유로움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임사용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피임지식과 피임태도가 성별에 따라, 연령집단에 따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느냐 혹은 따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피임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피임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요컨대, 대학생들의 성문제에 접근하여 임신과 피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우선 대학생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성행동이 이루어지고 피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피임지식과 피임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다. 피임지식이나 피임태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피임실천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피임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문화도 변화해감에 따라 대학생 피임실태 변인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비교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가 피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며, 나아가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에 따라 피임지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 피임지식, 피임태도 변수를 통해 대학생들의 피임사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임의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와 각 학과 조교 등이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400부였으며, 이

〈표 1〉 일반적 특성

(N=388)

내용	범주	N(%)	내용	범주	N(%)
연령	20세 이하	227 (58.5)	학년	1학년	120 (30.9)
	21세 이상	161 (41.5)		2학년	114 (29.4)
성별	남	142 (36.6)		3학년	85 (21.9)
	여	246 (63.4)		4학년	69 (17.8)
거주유형	부모와 함께	257 (66.2)	음주	안 한다	16 (4.1)
	혼자	131 (33.8)		한다	372 (95.9)
종교	기독교	100 (25.8)	흡연	안 한다	122 (31.4)
	천주교	28 (7.2)		한다	266 (68.6)
	불교	63 (16.2)	성경경험	없다	246 (63.4)
	무교	197 (50.8)		있다	142 (36.6)
				성교육	없다
		경험여부	있다	313 (80.7)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 12부를 제외한 총 3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령집단(연령집단은 전통적으로 성년을 의미하는 만 20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의 경우, 21세 이상이 41.5%, 20세 이하가 58.5%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은 30.9%, 2학년은 29.4%, 3학년은 21.9%, 4학년은 17.8%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36.6%, 여학생이 63.4%로 여학생이 좀 더 많았다.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66.2%였고, 부모와 떨어져서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33.8%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25.8%, 불교 16.2%, 카톨릭이 7.2%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반수를 차지했다. 음주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이 4.1%였고, 대다수의 학생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이 31.4%였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68.6%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63.4%였고,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36.6%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80.7%였고, 성교육을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도 19.3%였다.

2. 연구도구

1) 피임지식

피임지식과 관련된 도구는 김미중(2001)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기존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정관수술과 관련된 1문항을 제외하고 콘돔 1문항, 배란 1문항, 난관수술 1문항, 난자 1문항을 추가하

여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장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였고 간호학 교수 2인과 가정학 교수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맞는 문장은 1점, 틀린 문장과 모른다고 답한 문장은 0점으로, 총 19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고,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6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4$ 이었다.

2) 피임태도

피임태도와 관련된 도구는 김선정(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피임태도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임태도의 문항은 낙태와 피임주체, 피임방법에 대한 태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피임을 남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성관계 전 미리 피임을 준비하는 자세, 피임을 상대방에 맡겨두기 보다는 ‘자기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여기는 적극성을 측정하고 피임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피임태도를 의미한다. 이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간호학 교수 2인과 가정학 교수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김선정(2003)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4$ 이었다.

3) 피임사용 및 피임방법

피임사용은 성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만 유관질문을 통해 한정하여 질문하였다. 피임사용여부는 성교 시 피임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고, 피임방법은 다양한 피임방법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피임이유는 피임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학생들의 피임태도, 피임지식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학생들의 성, 연령집단,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태도, 피임지

식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추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 검증(simple main effect)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성, 연령집단,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사용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변수를 통해 대학생들의 피임사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두 집단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지식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피임지식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40.69($SD=19.32$)로 중간보다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피임지식을 비교해 보면

<표 2>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N=388)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	n	M	SD
남	부모와 거주	20세 이하	40	33.19	18.68
		21세 이상	55	34.34	15.75
		합계	95	33.85	16.96
	혼자 거주	20세 이하	16	37.50	17.97
		21세 이상	31	39.96	14.86
		합계	47	39.12	15.83
합계	20세 이하	56	34.42	18.42	
	21세 이상	86	36.36	15.58	
	합계	142	35.60	16.72	
여	부모와 거주	20세 이하	128	35.63	19.82
		21세 이상	34	53.59	16.46
		합계	162	39.40	20.47
	혼자 거주	20세 이하	43	47.28	19.44
		21세 이상	41	56.50	12.41
		합계	84	51.78	16.94
합계	20세 이하	171	38.56	20.31	
	21세 이상	75	55.18	14.36	
	합계	246	43.63	20.18	
합계	부모와 거주	20세 이하	257	37.35	19.40
		혼자 거주	131	47.24	17.58
	합계	20세 이하	227	37.54	19.90
		21세 이상	161	45.13	17.69
		합계	388	40.69	19.32

남학생들($M=35.60$, $SD=16.72$)에 비해 여학생의 평균($M=43.63$, $SD=20.18$)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들($M=37.35$, $SD=19.40$)보다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대학생들($M=47.24$, $SD=17.58$)의 피임지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에 따라 비교해보면 20세 이하의 연령집단($M=37.54$, $SD=19.90$)에 비해 21세 이상의 연령집단($M=45.13$, $SD=17.69$)의 대학생들이 피임지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임지식이 가장 낮은 집단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0세 이하의 남자 대학생($M=33.19$, $SD=18.68$)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임지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21세 이상의 여자대학생($M=56.50$, $SD=12.4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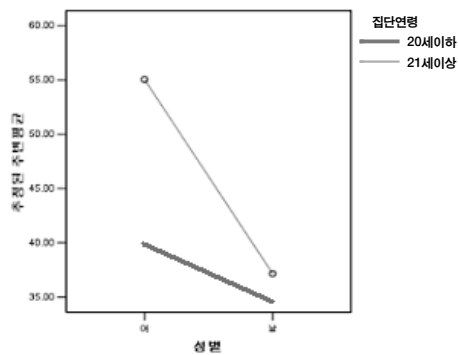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과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성별, 거주유형 및 연령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거주유형에 따라,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지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피임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낮았고, 20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21세 이상의 연령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거주유형과 연령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성별, 거주유형 및 연령집단에 따른 이차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성별 및 연령집단에 대한 피임지식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지식에 대한 삼원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	10348.09	1	10348.09	32.93***
거주유형	2691.51	1	2691.51	8.56**
연령집단	4255.26	1	4255.26	13.54***
성별 × 연령집단	2492.33	1	2492.33	7.93**
거주유형 × 연령집단	247.67	1	247.67	.78
성별 × 거주유형	96.46	1	96.46	.30
성별 × 거주유형 × 연령집단	454.12	1	454.12	1.44
오차	119393.95	380	314.19	
합계	145095.13	387		

** $p < .01$, *** $p < .001$



[그림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지식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들은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로 연령집단에 따른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녀집단을 구분하여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대학생들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여자대학생들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세 이상의 여학생들이 20세 이하의 여학생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태도에서의 단순주효과 검증

(N=388)

		20세 이하	21세 이상	t
		M(SD)	M(SD)	
피임지식	남	34.42(18.42)	36.36(15.58)	1.14
	여	38.56(20.31)	55.18(14.36)	-6.50***

*** $p < .001$

2. 대학생의 성별, 학년,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태도에서의 차이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태도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피임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81 ($SD=.49$)로 다소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평균을 살펴보면, 여학생들($M=3.86$, $SD=.47$)이 남학생

<표 5> 성별, 거주유형과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388)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	M	SD	n
남	부모와 거주	20세 이하	3.66	.63	40
		21세 이상	3.73	.45	55
		합계	3.70	.53	95
	혼자 거주	20세 이하	3.51	.40	16
		21세 이상	3.91	.48	31
		합계	3.78	.49	47
합계		20세 이하	3.62	.57	56
		21세 이상	3.80	.47	86
		합계	3.73	.52	142
여	부모와 거주	20세 이하	3.82	.49	128
		21세 이상	3.83	.49	34
		합계	3.82	.48	162
	혼자 거주	20세 이하	3.84	.42	43
		21세 이상	4.05	.39	41
		합계	3.94	.42	84
합계		20세 이하	3.83	.47	171
		21세 이상	3.95	.45	75
		합계	3.86	.47	246
합계	부모와 거주	합계	3.78	.50	257
		혼자 거주	합계	3.88	.45
	합계	20세 이하	3.77	.50	227
		21세 이상	3.87	.46	161
합계		합계	3.81	.49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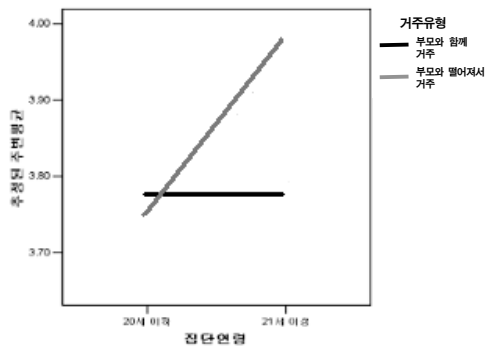
들($M=3.73$, $SD=.49$)에 비해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거주유형에 따라 평균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M=3.78$, $SD=.50$)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M=3.88$, $SD=.45$)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낮다. 연령집단에 따라 평균을 살펴보면 21세 이상인 집단의 대학생($M=3.87$, $SD=.46$)들이 20세 이하인 집단($M=3.77$, $SD=.50$)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임태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20세 이하의 남자 대학생($M=3.51$, $SD=.40$)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임태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21세 이상의 여자대학생($M=4.05$, $SD=.39$)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과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거주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21세 이상인 집단이 20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좋다. 하지만 거주유형에 따라서는

<표 6>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태도에 대한 삼원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	2.359	1	2.359	10.093**
거주유형	.324	1	.324	1.385
연령집단	2.121	1	2.121	9.076**
성별 × 연령집단	.286	1	.286	1.224
거주유형 × 연령집단	1.250	1	1.250	5.347*
성별 × 거주유형	.175	1	.175	.748
성별 × 거주유형 × 연령집단	.075	1	.075	.320
오차	88.815	380	.234	
합계	94.185	387		

* $p < .05$, ** $p < .01$



[그림 2] 거주유형과 집단연령에 따른 평균피임 태도의 상호작용효과

피임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과 연령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성별과 거주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성별, 거주유형 및 연령집단에 따른 이차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거주유형 및 연령집단에 대한 피임태도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으나, 21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들보다는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대학생의 피임태도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주유형 및 연령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주유형별로 연령집단에 따른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거주유형을 구분하여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표 7>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태도에서의 단순주효과 검증

		20세 이하		21세 이상		t
피임태도	부모와 거주	M(SD)	3.78(.53)	3.77(.47)	.22	
	혼자 거주	M(SD)	3.75(.44)	3.99(.43)	-3.09**	

** $p < .01$

21세 이상의 대학생들이 20세 이하의 대학생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들의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사용에서의 차이

대학생들의 피임사용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행위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76.8%가 성관계 시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3.2%가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임을 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3.97%), 그 다음으로는 질외사정법(23.71%), 월경주기법(17.24), 구강 피임약(9.05%), 사후응급피임약(4.31%), 기초체온법(1.72%) 순으로 나타났다. 피임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갑작스런 성관계(39.1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피임방법을 몰라서(19.56), 분위기 께까봐(13.04%), 창피해서(10.87%), 부작용(8.69%), 기

<표 8> 대학생들의 피임사용의 일반적 경향

구분	항목	빈도(%)
피임사용	예	109 (76.8)
	아니요	33 (23.2)
피임방법	콘돔	102 (43.97)
	질외사정법	55 (23.71)
	월경주기법	40 (17.24)
	구강 피임약	21 (9.05)
	사후응급피임약	10 (4.31)
	기초체온법	4 (1.72)
	질살정제	0 (0)
피임하지 않은 이유	갑작스런 성관계	18 (39.13)
	피임방법을 몰라서	9 (19.56)
	분위기 께까봐	6 (13.04)
	창피해서	5 (10.87)
	부작용	4 (8.69)
	기타	4 (8.69)

〈표 9〉 성별, 거주유형과 연령집단에 따른 피임사용여부에서의 차이

		예측소속집단		n	x ²
		아니오	예		
		빈도(%)	빈도(%)		
성별	여자대학생	16(36.4)	28(63.6)	44	.13*
	남자대학생	17(17.3)	81(82.7)	98	
거주유형	부모와 거주	10(22.7)	34(77.3)	44	.92
	혼자 거주	23(23.5)	75(76.5)	98	
연령집단	20세 이하	18(20.9)	68(79.1)	86	.42
	21세 이상	15(26.8)	41(73.2)	56	

*p<.05

타(8.69%)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과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사용여부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²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성별에 따라 피임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²=.13, p<.05).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들보다 피임을 실천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거주유형이나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피임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대학생들의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 피임지식과 피임태도를 통한 대학생들의 피임사용여부의 판별

대학생들의 성별, 거주유형, 연령집단, 피임지식과 피임태도가 대학생들의 피임 사용여부를 타당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대학생들의 피임사용의 특성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집단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은 <표 10>과 같다. 피임사용여부에 대한 두 집단 판별분석 결과, 한 개의 유의한 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제1 판별함수의 Wilk's Lamda=.8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피임사용여부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를 토대

〈표 10〉 표준화 판별계수 및 구조행렬

	표준화 판별계수	구조계수
성별	.71	.53
거주유형	-.21	-.32
연령집단	-.39	-.29
피임지식	-.35	-.05
피임태도	.74	.52

〈표 11〉 피임사용여부의 분류결과

피임사용	예측소속집단		n
	아니오	예	
아니오	20(69.0)	9(31.0)	29(100)
예	30(29.4)	72(70.6)	102(100)

로 살펴보면 피임태도(.74)와 성별(.71)이 집단분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행렬에 제시된 구조계수는 판별함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클수록 판별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성별(.53)과 피임태도(.52)가 집단분리에 큰 기여를 함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중심점(group centroid)을 비교해보면 제1 판별함수에서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은 -.67, 피임을 사용하는 집단은 .19로, 이는 두 집단이 뚜렷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독립변수들에 의해 대학생들의 피임사용 여부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69%, 피임을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70.6%의 대학생들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70.2%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별, 피임태도, 피임지식, 거주유형, 연령집단 요인이 대학생들의 피임사용 여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지식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대학생들의 피임지식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의 피임지식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40.69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피임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여성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지식 정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결과(최소영 외, 2004; Morrison, 1985)들과 유사하다. 이는 학교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이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성교육이 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고(이혜숙, 2002)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포괄적인 성교육내용을 단시간에 다룸에 따라 실제로 성이나 피임과 관련된 지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

우 과거 중고등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이 유용하지 못해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교육내용으로 피임방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숙, 2002; 최명숙, 하나선, 2004). 또한, 타이완 청소년들의 임신관련 요인을 조사한 Wang *et al.*(2003)은 피임지식이 청소년 임신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피임교육이 필요하다. 즉, 성폭력이나 청소년 미혼모 급증 등과 같은 사회현상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시행되는 일회성 피임교육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 및 성파트너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피임교육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과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성별, 거주유형 및 연령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피임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피임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20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21세 이상의 연령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로 연령집단에 따른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자대학생들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여자대학생들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피임지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세 이상의 여학생들이 20세 이하의 여학생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남녀의 피임지식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선행연구(남명희, 1999; 임현자 외, 2002; 최명숙, 하나선, 2004)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피임지식에 있어 연령집단에 따라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직 피임지식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추론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만 20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데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자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부모나 학교, 사회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 성장한 대학생들에게 성년의 의미는 개인적인 독립과 자율을 의미

한다. 특히 순결위주의 성교육을 강요당한 여학생들의 경우, 대학에 들어와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성과의 교제가 많아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에 이르면 피임과 관련된 지식을 스스로 혹은 친구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학생들에 비해, 그리고 20세 이하의 여학생들보다 21세 이상의 여학생들의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은 이유는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혼전 성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더 정확한 피임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후후연구에서는 면접이나 사례연구 등을 통해 피임지식에서의 성별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들보다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피임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로운 이성교제 및 성교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방출신의 대학생 커플이나 지방대학 커플들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필요에 의해 혹은 성경험을 통해 성이나 피임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태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피임태도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의 피임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81로 다소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지식이 피임방법이나 결과 등에 대한 정보적인 측면이라면 피임태도를 피임에 대한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평가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방법, 책임, 의사소통, 실천 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끼며 이를 위해 성파트너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피임행위를 실천하려는 책임감을 갖는다(조주연 외, 2006). 특히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태도와 그 행동에 대한 주관

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피임태도는 피임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중, 2001; Adler *et al.*, 1990; Sawyer & Beck, 198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들의 피임태도가 다소 긍정적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이 피임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피임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성교를 통한 여러 질병들의 예방, 인공유산의 방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현대적인 피임방법들에 대해 알아야 하고 피임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과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21세 이상인 집단이 20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또한, 거주유형과 연령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거주유형별로 연령집단에 따른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21세 이상의 대학생들이 20세 이하의 대학생에 비해 피임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태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이전의 선행연구(임현자 외, 2002)와는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피임태도는 피임방법, 피임사용 등에 있어서의 책임감,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학생들이 성파트너와의 관계 형성 시 수동적 혹은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피임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효율적인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인 관습으로 인해 여성에게는 성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못했었지만, 현대사회 들어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여성의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관대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이 보다 강해졌다. 이러한 측면들은 여학생들이 피임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거주유형과 연령에 따라 피임태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21세 이상의 대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환경적·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성과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성이나 피임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다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20세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 피임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피임방법과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임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기대수준은 청소년들의 피임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Eisenberg *et al.*, 2004; Manlove *et al.*, 2008; Sieving *et al.*,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학 이전까지 부모의 보호 속에서 살아온 대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면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인해 책임지지 못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모들과 자신의 이성교제나 피임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입학초기에 이성교제나 성관계, 피임과 관련된 실천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자신과 성파트너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임이 실행되어야 함을 인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피임사용과 관련해서 살펴본 결과, 성관계를 가진 대학생들의 76.8%가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경험이 있는 과반수이상의 대학생들이 피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피임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피임방법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20%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에 따른 피임사용에서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별에 따라 피임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피임을 더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사용과 관련된 성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대학생들의 피임사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대

학생들의 피임행동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사용한 결과, 성별과 피임태도가 집단 분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형에 의한 분류의 정확도는 70.2%이었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피임을 더 잘 사용하고, 피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을 잘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피임을 더 잘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은 성관계시 남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지 않는 사실(Burger & Inderbitzen, 1985)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들의 피임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형성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피임태도가 피임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김미중 2001; Herold & Mcnamee, 1982; Sawyer & Beck, 1988)와 일치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성과 관련하여 자기주장을 잘 하고 피임도구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성관계와 피임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nson, 1986). 피임에 대한 지식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도가 실제 피임행동을 잘 예측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피임의 필요성과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여 피임방법에 대한 상호간의 의사소통, 사용의 지 등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일회성의 교육으로 형성될 수 없다. 대학에서는 청년기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연스러운 이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피임사용과 관련하여 피임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킴으로써, 피임프로그램 개발 시 피임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피임교육 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특성(성, 거주유형, 연령 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

으나, 실제로는 이외에 개인 심리적인 변인(자존감, 자기 효능성, 성개방성 등) 뿐 아니라 환경 변인(성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와의 의사소통, 종교 등)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심리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과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러 연구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 개발된 측정도구들은 하나의 구인으로 묶여있어 단순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로만 평가가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피임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포함되는 구인들을 밝힘으로써 피임에 대한 태도를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사용, 대학생

참 고 문 헌

- 고연숙. (2001).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중. (2001).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관한 설명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2), 141-156.
- 김미중, 강희선. (2003). 기혼여성의 지속적 피임행위와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및 성적자율성. **대한간호학회지**, 33(6), 784-791.
- 김선정. (2003). 서울시 일부 중학생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시청각 교육과 토론을 적용한 피임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1999).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김경신. (2008).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123-138.
-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격형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39-251.
- 박금숙. (2007). 대학생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건강행동의 차이분석.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숙. (2001).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 비교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2).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혜숙. (2002). 일부 여대생의 성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131-144.
- 임현자, 내산화미, 조유향. (2002). 한-일 대학생의 경구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471-481.
- 전은경. (1999). 한국 수도권 대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구조 및 행동양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7).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조주연, 한승의, 송미숙. (2006). 여대생들의 피임행위에 대한 주관성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4), 338-347.
- 최명숙, 하나선. (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18-330.
- 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 10대 여성의 성행동, 임신 실태 및 피임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1), 42-50.
- 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대학생들의 성행동 및 피임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7(3), 267-275.
- Adler, N. E., Kegels, S. M., Irwin, Jr. C. E., & Wibbelsman, C. (1990). Adolescent contraceptive behavior : An assessment of decision process. *Journal of Pediatrics*, 116(3), 463-471.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urger, J. M., & Inderbirtzen, H. M. (1985). Predicting contraceptives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 The role of communication, knowledge, sexual anxiety and self esteem.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4), 343-350.
- Eisenberg, M. E., Bearinger, L. H., Sieving, R. E., Swain, C., & Resnick, M. D. (2004). Parents' beliefs about condoms and oral contraceptives: Are they medically accurate. *Perspective Sex Reproduction Health*, 36(2), 50-57.
- Herold, E. S., & Mcnamee, J. E. (1982). An explanatory model of contraceptive use among young single wo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8(4), 289-304.
- Hornick, J. P., Devlin, M. C., Downey, M. K., & Baynham, T. (1986).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ontraceptors : A multivariate typology. *The Journal of Social Work & Human Sexuality Series*, 4(1/2), 17-31.
- Levinson, R. A. (1986). Contraceptive self efficacy : A perspective on teenage girls' contraceptive behavio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2(3), 347-369.
- Manlove, J., Logan, C., Moore, K. A., & Ikramullah, E. (2008). Pathways from family religiosity to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use.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0(2), 105-117.
- Morrison, D. M. (1985). Adolescent contraceptive behavior: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8(3), 538-568.
- Odimegwu, C. O. (1999). Family planning attitudes and use in Nigeria : A factor analysi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5(2), 86-91.
- Sawyer, R., & Beck, K. H. (1988). Predicting pregnancy and contraceptives usage among college women. *Health Education*, 19(2), 42-47.
- Sieving, R. E., Bearinger, L., Resnick, M., Pettingell, S., & Skay, C. (2007). Adolescent dual method use: Relevant attitudes, normative belief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3), 275-275.
- Wang, R. H., Wang, H. H., & Hsu, M. T.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egnancy-A sample of Taiwanese female adolescents. *Public Health Nursing*, 20(1), 33-41.

접 수 일 : 2010. 01. 21.
수정완료일 : 2010. 03. 17.
게재확정일 : 2010. 04. 08.